



희망등대

2018년 첫 번째 이야기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표지사진



희망등대-첫번째 이야기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남정숙

편집인 진현

발행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화번호 051-463-1127

팩스번호 051-463-1128

홈페이지 www.hopelight.or.kr

이메일 nosugin@hanmail.net

CONTENTS

- 03 인사말
- 04 사업안내
- 05 부산시 거리노숙인 현황
- 06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 07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하길 희망하며
- 08 희망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 09 이용목욕 서비스 '렛츠 (美)'
- 10 희망으로 도약하는 인생 2막
- 11 거리에서 집으로
- 12 희망등대를 더욱 밝히는 후원과 자원봉사의 하모니

2018년을 되돌아보며

아침 집을 나오며 발밑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아~ 벌써 한해가 다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시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빠름뿐만 아니라 제가 언제부터인가 한 해의 마지막이 오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우리 노숙인 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레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5단계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의 발현을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기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위계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욕구 5단계에서 가장 하위 단계인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신체적 필요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주거와 같은 안전의 욕구, 이 둘 모두가 결핍된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욕구의 최 하위단계조차 채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우선권을 두고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더 나은 단계의 욕구들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의 노력과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 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나누고자 올해 소식지 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를 기억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주시는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장 남경숙

사업안내

현장지원팀



아웃리치

- 대상 : 거리노숙인
- 시간 : 주·야간 상시 운영
- 내용 : 거리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 대상 :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 시간 : 주·야간 상시 운영
- 내용 :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사례관리



이동목욕서비스

- 대상 : 거리노숙인
- 장소 : 부산역(2·4주 월), 부산진역(매주 목)
- 시간 : 10시 ~ 14시



거리노숙인 위치맵

- 대상 : 부산광역시 거리노숙인 및 실무자
- 내용 : 부산시거리노숙인의 위치를 이미지화하여 온라인원 스톱 업무시스템 구축

주거지원팀



응급잠자리 운영

- 대상 : 노숙인
- 시간 : 18시 ~ 07시(익일)
- 내용 : 잠자리 제공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희망오르미)

- 대상 : 노숙인(거리, 쪽방, 시설)
- 내용 :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행정지원팀



취업지원사업

- 대상 : 노숙인
- 내용 : 직업상담, 취업지원,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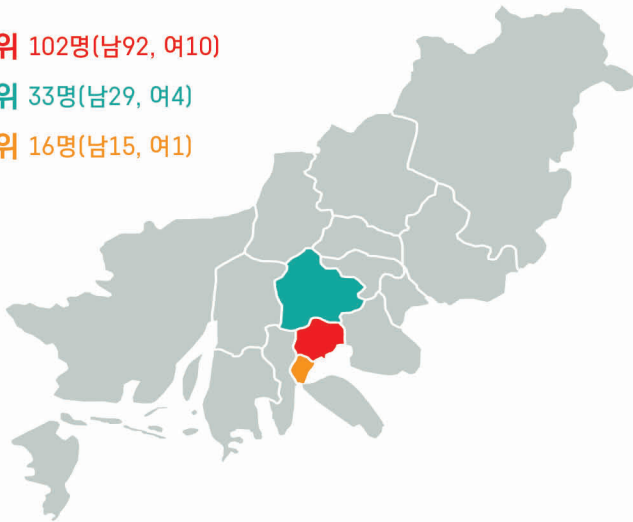
급성기병원 사례관리 사업

- 대상 : 급성기병원에 입원 중인 노숙인
- 내용 :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거리노숙인 현황

구군별 노숙인 현황

- 1위** 102명(남92, 여10)
- 2위** 33명(남29, 여4)
- 3위** 16명(남15, 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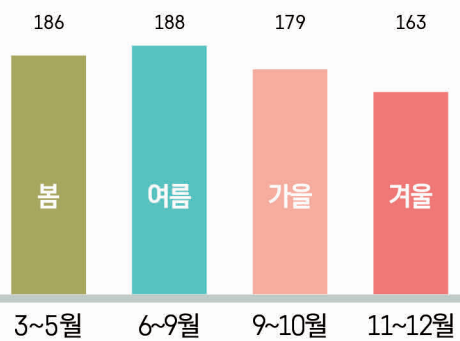


1	동구	102
2	부산진구	33
3	중구	16
4	해운대구	7
5	동래구	7
6	연제구	6
7	수영구	5
8	서구	5
9	금정구	4
10	사상구	4
11	북구	4
12	남구	1
13	영도구	1
14	강서구	0
15	기장군	0
16	사하구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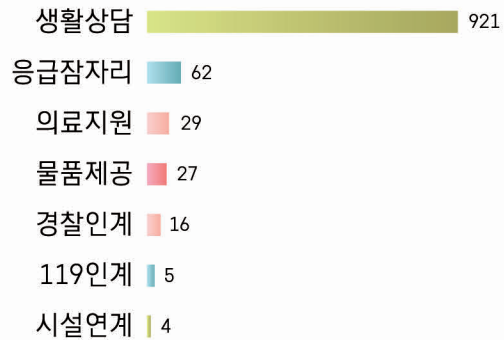
※참고자료 : 2017년 센터 일시집계자료 참조(평균값으로 추산)

계절별 거리노숙인 분포

단위(명)



주요제공서비스



센터의 땀과 열정



주간아웃리치	4,275km
심야아웃리치	8,994km
아웃리치 참여 사회복지사	연인원 682명
아웃리치 중 발견노숙인	연인원 9,083명

※ 센터 직원의 아웃리치 활동 거리를 나타냄.
※ 부산광역시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45km를 295번 다녀오는 거리임.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위기관리사업 활동가 수기

동구쪽방상담소 이재안

길 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 오죽하면 길 위에 주무시고 계실까. 아파서 그렇다. 아프면 아물 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하지만 물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손도잡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치료의 손길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여전하다. 일단은 외모에서 부담스럽다. 게다가 향기가 짙다. 설명하기가 힘든 냄새다. 그러니 뭔가가 묻고 심지어는 균이 옮을 것 같은 느낌이 짝이다.

오늘밤에도 일단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는 현장에서 주야로 돌아보는 활동가, 복지사들과 수녀님들, 종교인들이 있다. 물론 단위 시와 농어촌 마을에는 자치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모습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이들이 여전히 길 위에 주무시고 계신다. 돌봐야 하지 어쩌겠나. 술이 최고의 친구인데 술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힘이 없어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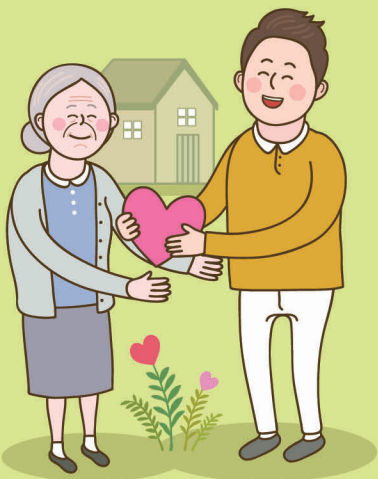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어느 시인이 모 언론사에게 사연을 보내셨더라.

한미래사회복지센터 송익준

희망등대와의 첫 인연은 4년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사로 일하던 2014년 어느 날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의 위기관리사업에 활동가로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 만해도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활동하는 것이었지만 새벽까지 활동을 해야 했던 탓에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참여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숙인 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선택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의 열정 가득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활동가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한미래사회복지센터로 이직을 하고서야 다시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활동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느끼는 생각은 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2018년 현재도 위기상황에 있는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나 의료지원은 개선되지 않았고 변화가 없는 모습에 많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등대의 위기관리사업은 희망등대 선생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의 노고로 더욱 많이 발전하고 성숙되어 있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다시 참여하게 된 소감들을 두 서 없이 이야기 드린 거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분들과 희망등대 선생님들에게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간략 소개

- 만성적인 알코올, 정신질환, 결핵 및 장기노숙, 신체적인 질환(복수, 제 3차 의료기관 진료 등)과 같은 고위험군의 문제를 가진 거리노숙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적 지원 등의 접근 필요
- 동사(凍死), 각종 질병 전파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보호 필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하길 희망하며

현장지원팀 김성진 사회복지사

어떤 사람들은 노숙인을 ‘나태한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능력 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불행한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인의 사유는 무수하다고 할 정도로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일부분의 시각으로만 노숙인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슈를 올바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 이르며 노숙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게 다양한 공공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제도는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자원이 아니며,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당사자(노숙인)의 사회 활동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장기간 굶주림과 가난, 심리적 불안, 질병 등 위험적인 요소에 노출된 이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듯하다.

한 예로 노동 활동을 하며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노숙인은 실제로 많으나, 이들은 비정기적이고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건설현장 일용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주거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찾고, 노동 경쟁에서 기회를 얻고, 노동의 댓가로 한끼 식사를 해결 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 현대인의 취업 활동과 거의 동일한 출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립 의지가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 기초적인 의식주를 영위하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며 자립과 노숙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노숙인이 가진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이나 무능력인 문제로만 오해 하지 말고, 사회구조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들이 가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직과 가족 해체, 사회관계 단절 등 다양한 사연으로 오늘도 누군가는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내어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기간 주거와 일자리가 병합된 형태의 복지 지원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진심어린 조언과 지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기

희망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에서 7년 정도 생활해 오고 있는 40대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와 가족사로 인해 사상구 쪽방에서 4년 정도 지내던 저에게 2011년 부산노숙인지원센터, 지금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에서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하여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가득했던 반 지하 쪽방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전 갑상선암 수술로 몸이 좋지 못하였고 남편과도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반복된 생활에 우울증도 앓았지만 임대주택 이사 이후 저의 생활은 조금씩 긍정적이고 밝게 바뀌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건강도 많이 회복하였고, 희망등대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참석하여 다른 입주자와도 가깝게 지내며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지내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제습기, 선풍기 등 물품지원과 관심 덕분에 지역사회 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에게는 2018년 또 하나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전세임대 주택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임대주택이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지난 2018년 10월 8일 해지 신청 후 현재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쪽방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세임대주택까지 오는 10여 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희망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제 얘기를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지원팀 원진성 사회복지사

이동목욕 서비스 '렛츠 미(美)'



▶ 이동목욕 차량사진

이동목욕 서비스란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구축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로 가정 또는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활용하여 방문 형태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동목욕'활동은 고정적인 장소에서 행하여진다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고 목욕을 실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흔히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목욕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아니나, 서비스가 필요한 본 사업 대상자의 경우 거리노숙인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목욕과 다르다.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이며, 또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자원이고 건강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목욕 서비스는 거리노숙인의 위생·청결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활, 자립의 의지를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희망으로 도약하는

인생2막

✓ 희망일자리 소개

희망일자리는 부산시와 코레일 지원사업으로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살려 부산역에서의 청소활동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에 이어 청소활동을 활용한 근태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상위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공·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범적인 노숙인 자활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이바지합니다.

주거지원팀 송지은 사회복지사

✓ 참여자수기



노숙 생활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무직상태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있었다. 나의 생활은 추위와 외로움, 우울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거의 매일 술로 달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노숙을 벗어나고자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노력도 하였고 잠깐이나마 일을 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부산역으로 되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노숙경험이 있다는 편견은 나의 발목을 붙잡았고 정착에 실패하면 어김없이 부산역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같이 노숙을 하던 형님에게서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 들었고 함께 일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계속 되는 구직실패로 지쳐있었으나 노숙을 하며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다. 고민을 거듭해도 상황은 변화하지 않으니 용기를 내어 참여를 결정하였다. 희망일자리를 통해 다시 일어서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부산역 광장을 청소하는 일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광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치우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만큼 광장은 쓰레기가 상당하다. 처음 일을 할 당시에는 ‘3시간씩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도의 일로 환경미화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 쓰레기를 치웠고 요즘은 광장이 깨끗해지는 것이 서서히 눈에 보인다. 요즘엔 쓰레기를 수거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고맙다, 수고한다.”며 인사를 건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부산역 직원들도 지나가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면 안 되냐는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쓰레기를 줍는 일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일을 거듭할수록 인정받는 것 같아 매일 보람을 느낀다. 무력하게 살던 나에게 희망일자리는 말 그대로 희망을 주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으로 저축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욕을 준다. 희망일자리는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그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발판으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노숙인도 나를, 우리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를 바란다. 희망일자리가 나에게 작은 시작이 되어준 것처럼 희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자 : 김OO선생님



거리에서 집으로



주거지원팀 김준현 사회복지사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건물 2층에는 1년 365일 노숙인을 위한 잠자리가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이 거리노숙에서 벗어나 자립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잠자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센터의 업무가 종료되는 저녁 6시면 응급잠자리가 개방된다. 일평균 30명 이상의 노숙인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며 자립을 준비한다. 응급잠자리 이용자들에게 이곳은 각자의 하루 일과가 끝난 뒤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잠을 잘 수 있는, 돌아와 쉴 곳이 되어주는 집이다.

잠자리와 함께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TV, 컴퓨터, 도서, 커피자판기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개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봉사자를 통한 이·미용 서비스가 월 1회 실시되며, 동절기에는 인근 식당과 계약을 체결해 석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낚시를 가는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명절이면 합동차례를 지낸 뒤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하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 노숙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외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잠자리는 이러한 일시적인 보호와 함께 긴급보호의 성격 또한 띤다. 잠자리가 운영되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경찰, 119 등을 통해 거리 노숙인을 인계,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취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체 및 정신 건강상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오전 8시, 출동한 연계대기자에게 인계하여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 보호의 형태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응급잠자리를 이용한 신규 이용자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존 이용자는 하루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들을 지지한다.

거리를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희망등대의 응급잠자리라는 이름의 집은 오늘도 이들에게 따뜻한 쉼 곳이 되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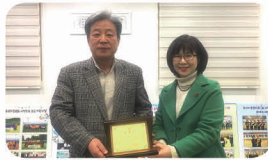
희망등대를 더욱 밝히는 후원과 자원봉사의 하모니

희망등대 후원의슈퍼히어로~!

바로 저희 센터 1층에 자리한 (주)보문의 이상규 사장님입니다. 그동안 매월 정기후원금뿐만 아니라 풍성한 명절을 위한 비정기후원금과 거리에 있는 노숙인과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간식류, 물품등을 센터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계십니다. 2017년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주)보문의 직원 여러분들도 몇 년째 꾸준히 함께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시는 우리의 슈퍼히어로 이상규사장님!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사장님의 후원으로 힘을 얻은 많은 대상자분들도 또 새로운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문에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 30,800,000원
후원물품 16,075,060원 상당



저희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문의처 : 후원&자원봉사 담당자 김민지 사회복지사

부산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도움주신 분들

- 기금후원자 : (주)보문(이상규), 강선구, 김훈식, 유수진, 태진아이티, 한국철도공사, 함유미, 무명
- 물품후원자 : (주)보문(이상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파리바게트 부전역점(권영민), 무명
- 개인자원봉사자 : 김아영, 김동률, 이교창, 정동용, 최경태
- 단체자원봉사자 : 파비엔에이치(김민환, 김민경, 김소희, 박은정)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18년 1월~10월)

구분	금액	내역
세입총괄	75,303,636	
세입	전년도이월금	23,537,636 전년도 이월금
	지정후원금	40,036,000 코레일지원 부산역청소 희망일자리사업
	비지정후원금	11,730,000 비지정후원금
세출총괄	75,303,636	
세출	사회심리재활사업비	642,160 자조모임, 명절행사, 이미용서비스
	프로그램사업비	31,372,871 희망일자리사업비, 아웃리치사업비, 기관연계사업비, 매임임대사업비, 무료직업소개사업비
	운영비	2,432,910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이월금	40,855,695 후원금 잔액(기 수령한 사업비잔액 포함)

- 후원금 전용계좌 : 부산은행 101-2022-2519-02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남정숙